



함께 만드는
을지로 아카이브 프로젝트

이지루동

2 no.1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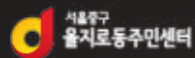


을지로통 No. 11

발행일: 2022. 12
기획: 을지로동 주민센터
담당: 이해영 주무관
편집: 스페인책방

을지로통은
을지로에 대한 소개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동네 소식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을지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글로 담은 <을지로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을지로
210



표지 사진
: 인쇄골목에서 만난 담
(SNS콘텐츠공모전 우수상 김보경)

금옥순

을지로는 참 아름다워요.
청계천을 따라 걷는 길이 좋습니다.



이미령

을지로가 사라지는 것이 슬퍼...
사람이 떠나면 힘이 없어지잖아.



달콤한 추억, 향기를 흔적

2022 을지로 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김학선

저에게 을지로는 달콤한 추억으로 시작됩니다. 취미로 빵을 만들던 학창 시절 처음 알게 된 방산시장. 멀리 경기도에서 을지로까지 찾아와 재료를 살피고, 기념일에 맞춰 케이크를 만들어 나누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졸업 후에는 아로마 오일과 천연 화장품을 공부하게 되면서 방산 시장에 오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을지로는 빵을 만들며 쌓인 달콤한 추억과 아로마의 향긋한 흔적이 어우러져 저에게 더욱 큰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공방에 대한 꿈 역시 이때, 을지로에서 시작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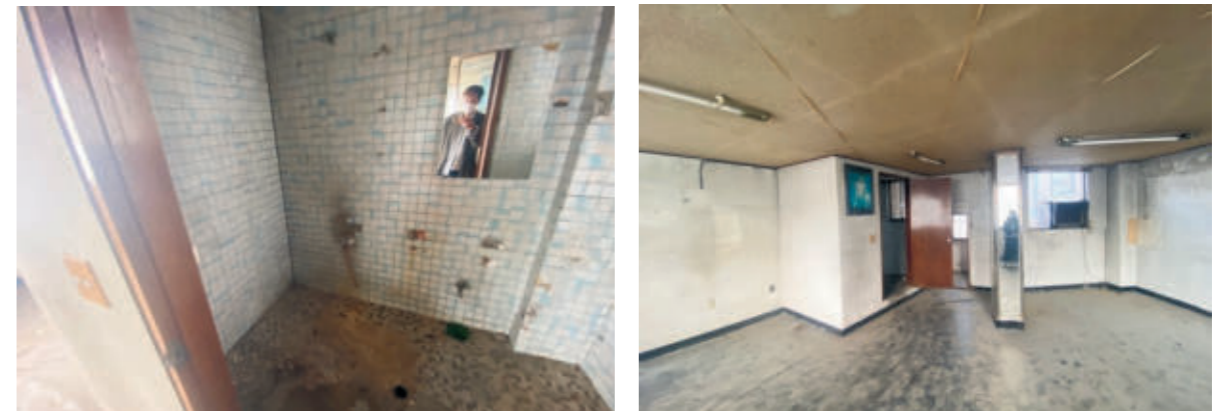
을지로 5가에 자리한 지금의 공방 이야기는 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로운 향을 찾아 방산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던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고, 하늘에 시선이 닿을 즈음 눈에 띄는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을지로 5가 교차로에 자리한 벽돌로 만들어진 3층 건물. 1층에 적힌 “임대문의”라는 글씨. 평소에 생각한 공방의 이미지를 닮은 연식이 느껴지는 모습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당시 퇴사 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고, 마침 운명처럼 눈에 들어온 을지로의 낡은 건물은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마음과 두려움에 고민의 시간도 필요했어요.



고민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고, 낙엽이 떨어지는 10월, 다시 방문한 그곳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을 안고 3층에 위치한 공실을 들어서는 순간 통유리 뒤로 펼쳐진 을지로의 모습에 사로잡혔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하늘은 두말할 것 없었죠. 내 나이보다 오래된 뼈대와 노후한 시설은 잠시 생각에서 접어두었습니다. 창밖을 수놓은 노을 진 도시의 모습이 저를 반겼고, 놓치기 아까운 시티뷰에 마음을 뺏겨 계약하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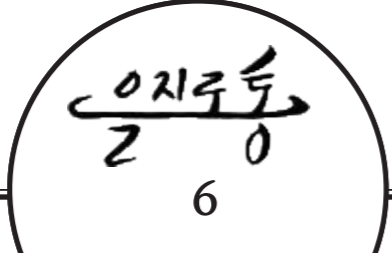


자신 있게 선택했지만, 멋진 도시 모습에 가려진 오래된 현장이 현실로 다가왔고, 잠시 잊고 있었던 걱정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꾸려갈 공간과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죠. ‘답답한 천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짜막힌 화장실 배관은 어디에 연락해야 하지...?’ 생각에 잠겨 힘들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을지로의 전문 상가와 상인들. 이곳이라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었고, 이웃 상가의 문을 두드리며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제 구실을 못 하던 화장실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재료를 사다 나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길 건너 도기 상가에서 변기와 타일을 나르던 그날의 고생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리어카에 실어 옮겨 주셨던 어르신과의 짧은 대화에서 을지로가 흘러온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마무리되어가는 공방의 곳곳은 을지로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설비 사장님과 저의 합동 작품인 화장실. 방산시장에서 직접 고른 아로마 향료. 목공소 사



장님의 기술과 직접 골라 바른 페인트까지... 을지로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현장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을지로는 여전히 저에게 활기찬 기운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성과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고 싶어 을지로를 표현한 아름다운 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향의 이야기는 을지로 거리의 모습을 담게 되겠죠.

낮설게 다가왔던 을지로의 어두운 골목은 이제 저에게 층층이 쌓인 연륜으로 다가옵니다. 활기를 띤 광장시장과 세운상가의 힘지로 에너지가 뒤섞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을지로의 향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을지로 대로변을 바라보며 향을 생각하고, 글을 쓰며, 꿈을 조향하고 있습니다.

풍경화가 된 을지로
(SNS콘텐츠공모전 최우수상 박윤준)





하나밖에 없는 달력 잊혀진 공간을 찾다

2022 을지로 콘텐츠 공모전 특별상 이춘재

“와우~~ 멋지다!”

싱싱한 활어처럼 디지털 인쇄기를 막 벗어나는 캘린더 출력물을 보면서 나는 어린 아이가 되어 손뼉을 치고 있었다. 출력물이 재단기를 거쳐 용수철에 끼워지는 순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력’이 완성되었다.



여기는 인쇄골목의 서울인쇄센터. 을지로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서울의 대표적 상가 지역이지만, 지금은 재개발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심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을지로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 멋진 공간을 알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인쇄센터는 인쇄인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인쇄 놀이터로, 이곳에서 인쇄 체험과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침 브로슈어를 통해 이곳의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센터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만도 디지털 인쇄기, 디지털 커팅기, 실사출력기, 재단기, 무선 제본기, 중철기, 접지기, 오시기, 라미네이팅기, 3D프린터 등 웬만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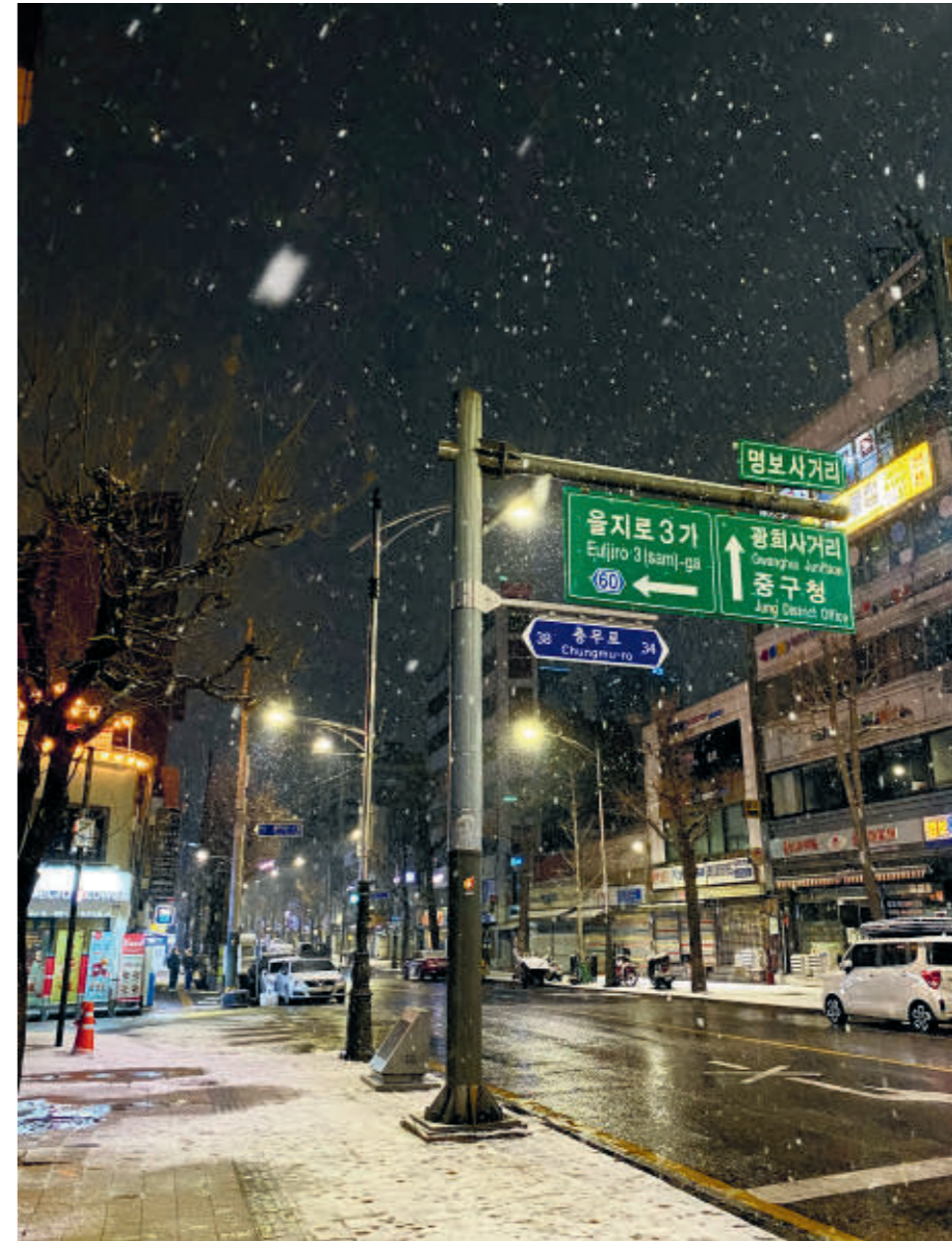
쇄소 수준이며, 강의장과 회의실 같은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인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기관이다.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달력 만들기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 순간 섬광이 스친 듯 갑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레기는 참 오랜만이였다. 오래전부터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고픈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집으로 오자마자 컴퓨터의 사진 폴더를 뒤지다가 마침내 ‘달력 후보’란 파일명으로 묻어두었던 꿈을 찾았다. 그리고 서둘러 달력 만들기를 신청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먼저 세로 타입의 사진들을 추려 15~16장을 서울인쇄센터 담당자 이메일(juan@oouniv.org)로 보내고 방문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오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력 실물을 손에 쥐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뒷풀이로 치맥을 하며 쌓은 좋은 추억에 더하여 꿈을 소생시킨 을지로. 나와의 소중한 인연은 이제부터다.

겨울을지로에서의 한달살기

2022 을지로 콘텐츠 공모전 특별상 석미혜



올해 1월 초, 나는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기차에 홀로 몸을 실었다.
코로나 전담 병원 파견 근무를 가기 위해서.

이미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재유행의 한중간에 있던 시기라 확진자 수는 폭증했고, 대학생이었던 나는 방학이 막 시작한 시점이었다. 가족은 그 힘든 일을 왜 다시 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처음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일한 내가 다시 연고도 없는 곳으로 혼자서 한 달 동안 일하는 것을 걱정하며 이제는 좀 쉬라고도 했다.

나에게 코로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었다.
손에 익어버린 일이었고 무섭다거나 기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남들과는 다른 자랑스럽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방학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 더불어 서울에서 한 달 살기라는 로망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숙소가 있는 을지로로 향했다. 첫인상은 독특했다. 현대적인 세련된 식당과 카페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건물이 나란히 있었다. 숙소를 관리해주는 분이 먼저 건네는 정겨운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을지로는 다정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아침에 보는 을지로는 활기 있다.
평생을 대구에서 산 나에게 눈이란, 너무 좋아하지만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여태 눈을 본 기억을 한 손으로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겨울 아침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 위에 쌓여 있는 눈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옆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과 부지런히 가게의 문을 여는 상인들도 볼 수 있었다. 이른 아침을 싫어하는 나를 아침마다 설레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낮에 보는 을지로는 오아시스 같다.
출근하려고 지하철역으로 갈 때면 어느 시간대에건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우동집이 있었다. 직장인과 노인들,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아 을지로 주민들의 아는 맛집 같았다. 꼭 가봐야지 했던 '동경우동'이 내가 을지로에서 방문한 첫 식당이었다. 을지로에는 숨은 맛집과 카페가 참 많았다. 첫 평양냉면의 경험도 '을지면옥'에서였다. 커피와 까눌레가 유명하다는 '세운청계상가'는 마치 사막 속 오아시스 같았다. 인쇄골목과 가구거리 사이, '이런 건물에 카페가 있다고?' 싶은 곳 옥상에는 수많은 젊은이와 멋스러운 가게들이 있다. 을지로는 왜 '힙지로'가 됐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다.

밤에 보는 을지로는 운치 있다.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간판과 늦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몇몇 상인들. 숙소 바로 옆에는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을지로 씨시봉'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추운 겨울과 대비되는 따뜻한 실내에서 들리는 라이브 공연과 와인 한잔은 마치 주문처럼 하루의 피로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게 해줬다. 그곳에서의 사람들은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나까지도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아직도 종종 그곳에서의 추억들을 되새기고는 한다.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종종걸음으로 퇴근하며 편의점에 들러 야식을 샀던 날, 졸린 눈을 비비며 베란다의 블라인드를 걷었을 때 선물처럼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보이던 장면, 계절과는 상반된 주민들의 따스한 웃음. 내가 을지로에서 얻은 추억의 양은 한 달 그 이상이었다.

딸과 함께한 방산시장 데이트

2022 을지로 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황미희

이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딸아이에게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다. 요즘 아이들은 빠르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딸이었기에 걸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내심 놀란 것도 사실이었다. 아이는 밸런타인데이에 꼭 직접 만든 초콜릿을 선물하고 싶다며 같이 방산시장에 가자고 졸라댔다. 이른바 '데이트 신청'이었다.

평소에 조르는 일이 별로 없는 암전한 아이어서 흔쾌히 같이 가주기로 하고 간단한 채비를 마쳐 방산시장에 들어섰다. 꽤 오래간만에 왔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복잡 복잡하고 저마다 일을 하는 사람들로 생기가 넘쳐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며 유리에 바짝 붙어 가게 안을 구경하기도 하고 밖에 진열되어 있는 베이킹 기구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동그란 속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가만히 지켜보면, 불임성 좋은 딸은 가게 사장님들한테도 곧잘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하고 질문을 던졌다. 인상 좋은 사장님들이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내색 없이 대답해주는 게 고마워 그동안 사야겠다고 버르다가 못 사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둘 사다 보니, 딸애보다도 먼저 내 손이 무거워졌다.

"너무 좋다 엄마. 인터넷보다 싸서 좋아."

"그래?"

"응. 여기서 사면 배송비도 안 들잖아. 오늘 왔을 때 전부 사 가야겠다, 밤에 만들어야."



도심 속의 여유
(SNS콘텐츠공모전 우수상 신성호)

재료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고르던 딸은 진갈색 동그란 버튼 모양 초콜릿과 하트 모양이 새겨진 초콜릿 틀을 하나씩 사고, 예쁘게 장식하겠다고 알록달록한 말린 과일 을 한 봉지 샀다.

“엄마도 나랑 같이 만들자! 겹치면 안 되니까 화이트 초콜릿 만들어서 아빠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네. 그래야겠다.”

딸아이는 제 아빠는 안 줄 생각인 걸까? 혹시 그렇다면 남편이 너무 섭섭해질 것 같아서 나도 아이 옆에서 신중하게 하얀색 초콜릿과 각양각색 모양 틀을 샀다. 나 까지 챙기지 않으면 남편이 얼마나 시무룩해질지 몰라 평소 좋아하던 견과류라도 넣어주려고 볶은 아몬드들 이리저리 들여보면 고소한 냄새가 살살 올라왔다.

“엄마 아몬드 쓰고 남으면 나도 써도 돼?”

“당연하지. 많이 사자. 쓰고 남으면 간식으로든 먹자.”

딸이 용돈을 아껴서 신이 났는지 폴짝 뛰며 만세를 외치자 가게 사장님이 귀엽다고 말린 호두며 건포도를 손에 쥐여주셨다. 먹어보니 맛이 있어 조그만 사이즈로 몇 개 구매하니 옆에 있던 딸이 사장님에게 엄지를 척 하고 따봉을 해 보였다.

딸아리와 하는 데이트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어서 이 골목 저 골목 돌아 다니며 물건을 사다 보니 어느덧 하늘 한편이 발갛게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좋은 재료를 많이 샀다고 신난 아이에게 “이제 그만 가야지.” 하고 말하니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산시장은 규모가 꽤 큰데 구석구석까지 돌아보느라 아무리 기운 좋은 아이라도 꽤 힘이 들었나 보다. 하얗고 조그만 딸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 한 손에 초콜릿 재료가 가득 든 검은 봉지를 들고 휘휘 돌리던 아이가 무슨 일이냐는 듯 나를 올려다봤다.

“내년에도 또 엄마랑 초콜릿 재료 사러 올까?”

“응. 좋아.”

언젠가는 이 작은 손이 희고 고운 아가씨의 손이 되어서, 초콜릿을 줄 정도로 좋아하는 멋진 남자의 손을 잡고 있게 되겠지만, 당분간은 천천히 자라서 엄마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같이 데이트라는 이름의 나들이를 다닐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바라본다.

“다음 밸런타인데이에도 꼭 오자.”

그리고 초콜릿 많이 만들어서 남으면 아빠한테도 주자, 하고 얘기하니 딸아이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히히 하고 웃고 만다. 방산시장에서 양손 가득 들고 온 것은 하트 모양, 동그란 모양, 때론 별 모양의 달콤한 애정이 되어 딸과 나 둘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김현희



©황진연

비오는날

2022 을지로 콘텐츠 공모전 특별상 장태기

비 오는 날이면 우리는 을지로로 향했다.

한 곳을 정하고 방문하진 않았다. 누군가 기분 울적한 일을 당했을 땐, 포차 거리를 순회하듯 다니며 술 한잔에 각자의 시름과 고민도 씻어내듯 마셨다.

또, 기분 좋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을 때는 을지로에 있는 자주 가는 고깃집에 함께 갔다.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처럼 그동안 누렇게 질렸던 마음도 노곤하다.

“고생한 보람 있다!”

주변의 칭찬도 좋았다. 그보다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이럴때 먹는 고기와 술은 항상 달았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우리는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을지로로 향했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사무실을 벗어나 을지로에 입성하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었다. 멀리서 보면 낯고 허름해 보이는 것도, 우리 눈엔 그 나름의 멋과 매력을 간직한 공간으로 느껴졌다. 요즘 애들 표현을 빌리면, ‘멋’스러움이 느껴졌다. 비 오는 날이면 을지로에 있는 LP 바나 칵테일 바에 갔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반주 삼아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 거기에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 한잔, 그 옆을 함께하는 사람들.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내가 을지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지역만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다. 어릴 적 우리는 큰 꿈을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살았다. 공룡이라도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이는 이제는 성인이 돼서 호기심보다는 관행에 집중하며 살아 가고 있다. 나만의 색을 펼치고 싶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어느 순간 해야 할 것, 남들이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나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사회라는 공간에 나오면서 점점 나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사잇골목
(SNS콘텐츠공모전 우수상 류다빈)

그렇게 나만의 색깔을 되찾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던 중, 우연히 을지로에 있는 LP 바에 방문하게 됐다. 그곳은 입구부터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간 느낌이였다. 레트로라는 감성이 느껴지는 실내 장식부터 분위기까지 색달랐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곳을 색다르게 느낀 건 세상의 변화와는 달리 을지로는 원래부터 자기 얼굴 그대로 그곳에 서 있어서는 아니었을까? 변해가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미명 아래 다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을지로는 자기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만 같았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찾기에 을지로는 화젯거리인 것은 아니다. 을지로에만 가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을지로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 역시 을지로의 모습처럼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가며 살고 싶다. 주변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나를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비 오는 날이면 을지로에 간다.

해가 지고 밤이 피어오를 때 을지로는 환하다. 환하게 자신만의 얼굴 그대로를 갖고 있다. 그곳에 서 있으면 나 역시 을지로처럼 어릴 적 큰 꿈을 갖고 지내던 아이로 돌아간 기분이 들곤 한다.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게 된다. 즐거운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로 시끄럽긴 하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이 불편하기보다 오히려 편함을 선사한다. 그 모습 자체가 을지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다. 다시 을지로에 가고 싶어진다. 을지로 공간 곳곳에 담긴, 지난 추억을 느끼러 가고 싶다. 앞으로의 을지로도 지금 모습 그대로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 앞에 있는 소나무처럼 을지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의 추억을 한 겹씩 쌓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탱크도 만들 수 있어요
(SNS콘텐츠공모전 대상 임광엽)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SNS콘텐츠공모전 장려상 신승희)





12 13
출입구 EXIT

을지로3가 (신)
Euljiro 3-ga (Shin)
을지로3가 (신)
Euljiro 3-ga (Shin)